

고양시, 청년 창업가에 사무·주거 일체형 주택 지원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이현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청년 창업지원주택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3월 3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경기도시공사와 고양시 청년 창업지원 주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고양시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주거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지원 주택 사업은 청년(예비) 창업가에게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의 일체형 주택을 제공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이 성공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 창업가들은 주택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으며 주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또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주택 건축 계획 때부터 청년 창업에 걸맞은 건축 기준을 세우고, 민간 건축주가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건축한 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협약에 따라 고양시는 청년 창업가 입주자 선정 기준을 세우고 입주할 청년들을 선정하며, 경기도시공사는 주택 매입·공급·임대계약, 시설물 관리 등 주택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 청년 창업지원 주택이 단순한 삶의 터전을 넘어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고양시에 정착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 청년창업 지원주택 사업은 이달부터 6월까지 사업자 모집공

고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입주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옛 능곡역사, 하반기에 문화복합거점 공간으로 재탄생

고양시는 능곡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인 '토당 문화 플랫폼' 조성을 위해 구 능곡역사 용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새 단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능곡지역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고양시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협조해 지난해 말 매매계약 체결을 마치고, 지난달 말 구 능곡역사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쳤다.

시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철도용지 매입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공백기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초 리모델링 공사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옛 능곡역사는 지어진 지 50여년 된 건축물로, 2004년 영업 중지 후 관리되지 않아왔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는 옛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지역 활성화를 주도하는 문화복합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도시재생 리모델링과 병행해 능곡지역만의 특수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과 정의로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코로나,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 비누로 30초 간 손 씻기 · 사회적 거리두기